

동종업계에서 우수안전관리 기업으로 우뚝

고도의 산업사회 발달에 따른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라 건물내의 교통수단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물류창고, 주차설비, 승강장의 스크린 도어등이 필요하다. 이를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IMF 경기불황에서도 지속적인 세계일류 승강기 기술업체와 다원적인 기술제휴 및 자체연구 개발을 강화한 끝에 국내 및 해외에서 제품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올리는 창립 이래 최대의 매출액을 올리는 실적을 달성한 기업이 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주)(대표이사 최용묵)는 1984년 5월에 창립하여 무재해 5배 목표달성과 최용묵 대표이사의 철탑산업훈장 수여 등 안전보건의 우수한 실적을 남기기도 하였고, 현대 그룹에서 수여하는 안전대상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등 안전에 대한 마인드는 이미 높게 평가 받은 기업이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은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주)는 동종업계 최초로 ISO 9001인증과 ISO 14001인증, A/S 우수기업 인증, 한국형 카브레이크 시스템을 개발하여



▲ 김복래 안전팀장



▲ 작업자세 조정



▲ WOS 공법

획득한 유럽안전규격인 CE마크 획득 등 제품의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품들의 설치는 전국 현장에서 이루어짐에 있어 설치시 추락, 협착, 낙하 등의 재래형 재해의 위험성이 크다.

WOS 공법,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

93년 이전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공사 급증과 함께 설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의 난립으로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때가 있었다.

대부분이 재래형 재해였다. 이 때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WOS 공법”을 개발·특허를 내어 단 한건의 추락과 협착재해로 발생되지 않았다.

“WOS 공법”은 기존에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족장을 밟고 설치작업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1층에서 최상층으로 점차적으로 승강로 전체를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의 재해를 완전 예방하는 공법이다. 이는 현대엘리베이터(주)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개발된 공법으로 「인간 존중」이라는



안전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공법이다.

그러나 WOS 공법으로 추락과 협착의 재해는 발생하지 않으나, 승강기 개구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도 시공사에서 운반작업 및 청소작업을 하다가 방지망 틈을 통해 승강로로 떨어지는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성이 있어, 현대엘리베이터(주)에서는 항상 시공사와 작업방법에 대해 토의를 하고, 시공사 근로자와 함께 안전교육을 시키고, 위험예지훈련을 철저히 하는 등 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안전순회점검팀 운영

승강기 설치 작업은 작업 특성상 작업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작업이다. 따라서 본사 안전팀, 설치부 안전팀 3인 1조로 구성하여 설치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및 제거조치, 작업방법의 결함과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시정,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의 확인결과를 설치현장 안전순회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또한 설치협력업체 및 당사 직영팀에 대해 안전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신상필벌에 대한 포상 및 징계요청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로 현재 현장에서의 안전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이다.

이밖에 현대엘리베이터(주)는 모든 안전관계자 및 근로자들을 대한산업안전협회를 통해 교육을 이수토록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대엘리베이터(주)가 동종업계에서 제품의 우수성과 함께 안전에서도 우뚝 서기까지는



▲ 설치 현장에서의 유해·위험 예지 훈련



▲ 엘리베이터 제조 공장 순회점검

강압적인 근대적 안전관리를 자제하고 근로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최용묵 대표이사의 안전마인드와 근로자의 참여가 있었고, 안전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며, 타협해서도 안된다는 김복태 안전팀장의 안전의지가 큰 바탕이 되었다.

이처럼 강한 안전의지와 함께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것과 같이 현대엘리베이터(주)의 안전활동이 큰 빛을 발하길 기원한다. 

